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구조*

The Rice and Barley Farm Couples' Time Use Patterns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한 영 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 수 이 연 숙***

Depar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

Doctoral course : Han, Young Sun

Depar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 Lee, Yon Su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time use patterns of rice and barley for farm couples.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farm households during the farming seasons (17th to 30th June) and the off-farming seasons (28th November to 11th December) of 2005, using a time diary.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18 couples, whose principal crops were rice and barley, living in rural area in eight provinces. SPSS Win 12.0 was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frequency, percentage and paired t-tes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sonal care time of wives was shorter than that of husbands, regardless of the farming period, with the couples showing more personal care time during the

* 본 연구는 2005년도 농촌진흥청 농업특정연구과제의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6년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주저자 : 한영선(charlottecorea@hotmail.com)

*** 교신저자 : 이연숙(yonsuk@korea.ac.kr)

off-farming season than during the farming season. Secondly, the total work(paid work plus housework) time of wives was longer than that of husbands during both the farming season and the off-farming season, showing that the labor burden of wives was bigger than that of husbands. Compared to the farming season, the total work time for both husbands and wives was shorter during the off-farming season, due to reduced farm work time, but the housework time increased for both husbands and wives. Thirdly, the leisure time of husbands was longer than that of wives during both seasons. The leisure time increased for both husbands and wives during the off-farming season, but the portion of the increase was bigger for husbands than for wives.

Key Words : 생활시간구조 (Time Use Patterns), 미맥 농가부부(Rice and Barley Farm Couples), 농번기(Farming Season), 농한기 (Off-farming Season)

I. 서론

우리나라 농촌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청·장년층 인구의 도시유출로 인해 가구형태가 변화되었고, 인구가 고령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 동안 농촌은 도시에 비해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비하였고, 최근에는 FTA (Free Trade Agreement)와 DDA(Doha Development Agend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촌가구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대내외적 여건변화는 농가 인구의 구성, 농가 경영의 성격이나 농업 경영의 존속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김정호·이병훈, 2006).

농림어업 총조사(통계청, 2005)에 의하면 2005년 농가수는 127만3천 가구이고, 농가 인구는 343만3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각각 8.0%, 14.8%가 감소하였고, 농가의 가구형태는 1세대의 부부 또는 독신가구가 55%로 가장 많았고, 2세대의 '부부+자녀'가구는 34%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가 167만6천명(48%), 여자가 175만7천명(52%)이고, 농업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50대 이하가 41.7%, 60대 이상이 58.3%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이 가족원의 노동력을 이용한 전통적인 농업 경영형태 대신 고령의 농가부부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농촌사회의 전반적 변화는 농가 소득의 감소, 농가 부인의 노동부담 및 농촌 생활의 질 수준 저하 등 문제점을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농촌생활의 실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생활시간 측정이 있다. 생활시간은 개인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므로, 이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문제해결의 방법이 된다(장명옥, 1990). Patricia(2002)는 시간사용 데이터는 가계 내 자원배분과 성평등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하였다. 따라서 농촌가정의 생활시간연구는 농가의 노동구조와 생활양식, 생활의 질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은 1964년에 농촌의 경영주와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시작하였고, 최은숙·이애순(1981), 조희금(1990)은 각각 농가 경영주와 주부,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의 양적 분석과 시간대별 분석을 실시하여 그들의 생활시간을 분

석하였다. 김인숙 외(1996), 한경미(1997), 김인숙·허경옥(1998), 김희순(2000)은 농가부부를, 허경옥·김인숙(1996)은 농가주부를, 조희금 외(2006)는 농가 가구원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의 양적 분석을 통해 생활시간연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촌가정의 생활시간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우리나라 생활시간연구는 주로 도시가정의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농가 가구원들이 생활시간 사용상 가지는 문제점이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농가형태인 미맥을 주작목으로 하는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시간을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누어 시간의 양적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시간의 개념

개인이 일정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는 생활시간(time use), 시간예산(time budget), 시간배분(time allocation), 시간사용(time use) 등 다양하다. 이들 용어의 의미는 거의 유사하지만, 나라 또는 학문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차이를 보인다(김외숙 외, 2000).

Nickell 등(1967)은 생활시간이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고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에너지, 재화, 지식 등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원으로 1일의 생활내용을 시간내용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숙재(1999)는 생활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어떤 생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시간적

배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의 생활내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생활시간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시대와 문화에서도 개인의 성, 연령, 직업,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효정(2004)은 문숙재(1999)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활시간을 정의하여 생활시간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그 밖에도 노동방식, 생활수단의 양과 질,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양과 질, 가족생활주기, 가족원의 수나 연령, 지역과 종교 등의 객관적 특성과 가치, 태도, 동기, 선호 등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NHK가 ‘국민생활시간’을 조사한 이후 생활시간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는데, 생활시간을 ‘생명의 유지 계승을 위하여 어떤 행태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시간에 영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시간을 ‘1일의 생활내용을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보고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김외숙 외,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을 ‘1일 24시간의 생활내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2. 생활시간의 행동분류

생활시간의 행동은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 학자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데 생활행동을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그 분류가 생활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생활시간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조희금, 1990). 또한 인간의 생활행동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행동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행동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하나의 개별행동에서 점차 더 큰 분류의 생활행동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인 수준에서 대분류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생활시간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간을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간일지(time diary)를 이용하여 후자의 방법으로 생활행동을 분류하고 있다(한지수, 2003).

국내의 생활시간연구 기관·연구자별 생활시간분류를 보면 <표 1>과 같다. 생활시간연구에서는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농촌진흥청(1988, 1993, 1998)에서는 농가 주부 및 경영주(남편)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한경미(1991)는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의 연구에서, 두경자(1995)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한·미·일 비교에서, 조희금(1997)은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이연숙 외(2002a, 2002b)는 한미 양국간 가족 및 부부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에서 4개의 범주로 생활시간을 분류하였다. 윤소영(2002)은 독신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문숙재·윤소영(2003)은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김효정(2004)은 기혼여성의 시간사용연구에서, 이연숙 외(2006)는 시간자원배분을 통해 본 농가부부의 지위 비교 연구에서, 조희금 외(2006)는 농가 가족원의 시간사용연구에서 생활시간을 4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생활시간을 5개의 범주로 나눈 연구도 있는데 홍향숙·박수경(1994)은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근무시간, 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적 돌보기 시간으로 나누었고, 박명숙·백경

임(1997)은 주부의 시간사용 연구에서 생리적 시간,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보기 시간, 기타로 구성하였다. 한국방송공사(2005)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크게 생활필수, 노동, 이동, 여가행동의 4개의 범주로 나누었고, 통계청(1999, 2004)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의 9개의 대분류로 나누었다.

Szalai(1972)는 1964-1966년에 12개 국가의 시간사용자료를 통한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생활내용을 시간일지로부터 96개의 활동으로 추출한 후 9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7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9개의 영역은 일,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기타 가사일, 개인적 필요시간, 일과 관련 없는 이동시간, 학습참여,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이다. Robinson(1976)은 크게 의무적 활동시간, 자유시간으로 나누어 의무적 활동시간에 노동, 가사노동, 자녀양육, 개인적인 필요, 교통시간 영역을 포함하였고, 자유시간에는 조직활동과 교육, 대중매체 이용, 사회적 오락적 시간을 포함하여 각각을 36개의 영역으로 세분하고, 또 각각을 더 세분하였다. Hill(1985)은 시간사용영역을 시장노동, 가사노동, 자녀돌보기, 쇼핑, 개인적 필요, 교육, 조직참여 활동, 사회적 오락, 적극적 여가 그리고 소극적 여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Rice와 Tucker(1986)는 시간사용 유형을 크게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으로 분류하고, 노동시간에는 수입노동, 가사노동, 자원노동시간을 포함하였고, 비노동시간에는 수면, 자유시간, 여가를 포함하였다.

일본 NHK(1990)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생활필수, 일·학업, 가사, 이동, 사회활동, 여가활동, 매스 미디어, 휴식의 8개의 행동으로 분류하였고, 유럽 10개 국가의 시간배분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유럽

통계연합(EUROSTAT, 2005)의 행동분류체계에서는 식사 및 개인적인 일, 수면, 수입노동 및 학습, 가사노동, 여가, 이동의 6개의 대분류로 나누었다.

국내외 생활시간연구 기관·연구자별 생활시간분류를 살펴본 결과 하루 24시간의 생활내용에 대한 생활시간분류는 연구기관·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연구 동향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연구는 주로 도시가정

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농촌가정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하였다. <표 2>는 농촌가정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연구의 주제, 자료수집 그리고 생활시간조사의 측정도구를 정리한 것이며, 각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다.

1981년 최은숙·이애순은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시간을 분석한 결과 농가의 주부와 남편은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에서 부부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휴양시간은 차이가 없었다. 이 후 1990년 조희금은 전통농지역과 상업농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주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생활시간을 분석하

(표 1) 국내외 생활시간연구 기관·연구자별 생활시간분류

연구기관·연구자	생활시간분류
Szalai(1972)	일,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기타 가사일, 개인적 필요시간, 일과 관련 없는 이동시간, 학습참여,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
Robinson(1976)	의무적 활동시간, 자유시간
Hill(1985)	시장노동, 가사노동, 자녀돌보기, 쇼핑, 개인적 필요, 교육, 조직참여 활동, 사회적 오락,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Rice & Tucker(1986)	노동시간, 비노동시간
일본 NHK(1990)	생활필수, 일·학업, 가사, 이동, 사회활동, 여가활동, 매스 미디어, 휴식
홍향숙·박수경(1994)	근무시간, 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적 돌보기 시간
박명숙·백경임(1997)	생리적 시간,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보기 시간, 기타
농촌진흥청(1988, 1993, 1998), 한경미(1991), 두경자(1995), 조희금(1997), 이연숙 외(2002a, 2002b), 윤소영(2002), 문숙재·윤소영(2003), 김효정(2004), 이연숙 외(2006), 조희금 외(2006)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통계청(1999, 2004)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한국방송공사(2005)	생활필수, 노동, 이동, 여가행동
유럽통계연합(EUROSTAT, 2005)	식사 및 개인적인 일, 수면, 수입노동 및 학습, 가사노동, 여가, 이동

였는데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전통 농지역과 상업농지역, 농번기와 농한기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회문화적시간은 농업성격에 의한 차이는 없고 농사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은 농업의 성격이나 농사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인숙 외(1996)의 연구와 허경옥·김인숙(1996)의 연구에서는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결과 농번기에는 농가 부부 간 심한 노동분담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농한기에 주부는 남편에 비해 긴 노동을 하며, 농번기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담당

〈표 2〉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연구

년도	연구자	연구주제	자료수집	생활시간조사 측정도구
1981	최은숙 · 이애순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생활시간별 분포를 중심으로-	평야, 중간, 산간지대 거주하는 대농, 중농, 소농의 총 54가구 유의표집 (1979년 농촌진흥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사용)	평일 3일간 관찰조사 ¹⁾
1990	조희금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시간양 및 시간대별 분석-	전통농지역과 상업농지역의 주부 286명 유의표집	15분 단위로 구획한 생활시간조사표 (time diary)
1996	김인숙 외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사용	평야, 중간, 산간지대 거주하는 대농, 중농, 소농의총 108호 유의표집 (1993년 농촌진흥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사용)	평일 2일간 15분 단위로 구획된 생활시간조사표 (time diary)
1996	허경옥 · 김인숙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연구: 가정생산이론적 접근	평야, 중간, 산간지대 거주하는 대농, 중농, 소농의총 108호 유의표집 (1993년 농촌진흥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사용)	평일 2일간 15분 단위로 구획된 생활시간조사표 (time diary)
1997	한경미	전남지역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의식 및 시간분석	다단계 층화표집 된 총 300가구	평일 1일간 15분 단위로 구획한 생활시간조사표 (time diary), 질문지
1998	김인숙 · 허경옥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 실태 비교 및 관련요인 분석	평야, 중간, 산간지대 거주하는 대농, 중농, 소농의총 108호 유의표집 (1993년 농촌진흥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사용)	평일 2일간 15분 단위로 구획된 생활시간조사표 (time diary)
2000	김희순	미맥 농가부부의 노동시간과 노동분담	평야, 중간, 산간지대 거주하는 대농, 중농, 소농의 총 216호 유의표집하여 농가부부 212쌍 (1998년 농촌진흥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사용)	평일 2일간 15분 단위로 구획된 생활시간조사표 (time diary)
2006	조희금 외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 분석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 지역의 미맥 20가구, 시설원에 10가구, 축산 10가구, 과수 10가구 총 400가구의 941가구원 (2005년 농촌진흥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사용)	연속된 2일간 10분 단위로 구획된 생활시간조사표 (time diary), 질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정미(1997)의 연구에서는 농업노동 시간은 남편이 부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가시간은 남편이 부인보다 더 많았다.

김인숙·허경옥(1998)은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가능시간 이론, 자원이론, 그리고 생애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 이 세 가지이론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시간사용에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세 이론 모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 부인의 경우는 농업노동에 덜 종사하거나 남편의 농업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가능시간 이론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시간은 부부 모두 이용가능시간 이론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순(2000)의 연구에서는 농가부부를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분석하였는데 농사시기에 따라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모두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금 외(2006)의 연구에서는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결과 농번기에 농촌 성인들은 남녀 모두 매우 큰 노동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인의 경우에도 농번기에는 물론 농한기에 조차 많은 노동시간과 적은 여가시간을 나타냈다. 농촌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업 부담으로 인해 가사노동이나 집안의 농업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으며, 의무생활시간에 비해 여가생활시간의 비중이 적고 그 내용 또한 소극적인 여가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된 ‘농촌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간의 양적 분석으로 연구되었고, 연구 초기에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연구가 주를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대상과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원의 생활시간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양적·질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4. 농가부부의 생활시간 변화추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연구의 대부분은 농촌진흥청의 ‘농촌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루어진 농가부부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통해 농가부부의 생활시간사용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농번기, 농한기에 남편과 부인의 생리적 시간은 연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추세이다.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부인의 생리적 시간은 남편보다 적으며, 농가부부 모두 농한기에는 농번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노동시간은 농번기에 부인의 경우 88년에는 12시간 44분, 93년과 98년에는 12시간 58분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88년에 7시간 52분이던 농업노동시간이 93년과 98년에는 각각 8시간 24분, 9시간으로 늘어나고 가사노동은 4시간 52분에서 4시간 34분, 3시간 58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한기에는 각 연도에 있어서 모두 농번기에 비해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총 노동시간은 88년에 7시간 35분에서 93년과 98년에는 각각 7시간 41분, 8시

1) 조사대상 지방(도)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사들을 조사원으로 선정하여, 1농가당 1명씩의 조사원이 조사대상 농가에 상주하면서 주부와 경영주의 1일 생활시간 내용을 미리 작성된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의 관찰법

간 45분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농업노동시간은 88년에 1시간 39분에서 93년과 98년에는 각각 2시간 10분, 3시간 34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사노동시간은 각 연도에 있어 모두 농번기에 비해 증가하여 88년 5시간 56분, 93년과 98년에는 각각 5시간 31분, 5시간 11분으로 나타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경우에도 총 노동시간은 88년에는 11시간 25분, 93년과 98년에는 각각 11시간 59분, 11시간 50분으로 증가하였으며, 농한기에는 88년에 5시간 29분에서 93년에는 5시간

정도로 줄었다가 98년에 6시간 18분으로 증가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농번기에는 88년 38분, 93년과 98년에는 각각 22분, 15분으로 줄었으며, 농한기는 88년에 1시간 22분에서 93년과 98년에는 각각 1시간 11분, 43분으로 계속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농번기에 남편과 부인의 사회문화적시간은 연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추세이다.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남편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부인보다 많았고, 농가부부 모두 농한기에는 농번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도나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부인의 총 노동시간은 남편의 총 노동시간보다 많고, 사회문화적시간은 남편이 부인보다 많다.

〈표 3〉 농가부부의 생활시간사용의 변화추이
(단위- 시간:분)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부인	남편	부인	남편	
생리적 시간	'98	9:32	9:49	10:27	10:43
	'93	9:27	9:41	10:49	11:05
	'88	9:45	10:15	10:32	10:21
노동시간	'98	12:58	11:50	8:45	6:18
	'93	12:58	11:59	7:41	5:02
	'88	12:44	11:25	7:35	5:29
수입노동	'98	9:00	11:35	3:34	5:35
	'93	8:24	11:37	2:10	3:51
	'88	7:52	10:47	1:39	4:07
가사노동	'98	3:58	0:15	5:11	0:43
	'93	4:34	0:22	5:31	1:11
	'88	4:52	0:38	5:56	1:22
사회문화적 시간	'98	1:30	2:21	4:48	6:59
	'93	1:35	2:20	5:53	8:10
	'88	1:31	2:20	5:53	8:10

출처 :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보고서(각년도2)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부부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농사시기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특정연구과제인 「농업인 삶의 질 수준 측정 및 복지정책 개발 연

- 2) 1998년 농촌진흥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농업 조수입 중 쌀농사로 한 조수입이 50%이상인 농가부부 212쌍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1993년 조사에는 미맥농가 108가구, 과수농가 30가구, 축산농가 30가구, 시설원예농가 3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1988년 조사에서는 중간, 평야, 산간지대로 나누어 이를 다시 대농, 중농, 소농으로 구분하여 표집한 총 108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구(조희금 외, 2005))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쌀과 보리를 주작목으로 하는 미맥 농가부부이다.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홍성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한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당 50가구씩 총 400가구를 유의표집 하였다. 지역 별로 주작목에 따라 미맥 20가구, 시설원에 10가구, 축산 10가구, 과수 10가구의 비율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농가 작목구분에 있어 주작목의 기준은 각 농가에서 경작하는 작목 중 그 작목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자가 필요량 이상으로 판매를 염두해 두고 쌀이나 보리 농사를 짓는 경우는 미맥가구로 인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1회의 예비조사와 2회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5년 5월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총 6가구 대상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계절에 따른 농촌가정의 시간사용 변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하여 2차례에 걸쳐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농번기인 2005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2주간)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1차 조사 대상가구를 패널로 하여 동일 가구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농한기인 동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2주간)까지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1100부, 2차 조사에서 1000부의 시간일지표가 회수되어,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농번기 총 1048부, 농한기 총 999부의 시간일지표 중 최종 분석 대상은 시간일지표를 기록한 400가구의 10세 이상 가족원 1, 2차 조사의 동일대상 자료 총 941 case 가운데 미맥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부

부 총 118셋(set)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24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누어 구성된 시간일지표(time diary)로 조사 대상자가 사용한 시간을 대상일의 새벽 0시부터 그 다음날 24시까지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연속된 2일 동안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기록하게 하여 한 번에 여러 행동을 중복해서 한 경우 동시행동을 빼고 중점적으로 한 주행동만 기입하게 하였다. 시간일지표의 자료집계는 사후코딩 방식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시간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부부간, 농사시기별 시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의 행동분류체계는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체계를 기초로 하고, 농업노동 행동분류에 대해서는 각 작목의 농사단계에 따라 농사작업의 행동유형을 새로 분류한 조희금 외(2005)의 행동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이를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기타로 재분류하여 9개의 대분류, 50개의 중분류, 140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여 생활시간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시간 행동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 ① 필수생활시간 : 필수생활시간은 개인 유지에 사용된 시간으로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개인유지 관련 이동 시간이 해당된다.
- ② 의무생활시간 : 의무생활시간은 농업일과 농업 외의 일, 학습을 포함하는 수입

노동시간과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를 포함하는 가사노동시간으로 구성된다.

- ③ 여가생활시간 : 여가생활시간은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포함된다.
- ④ 기타시간 : 기타시간에는 기타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그 외 기타(생활 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등)의 시간이 포함된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미맥 농가부부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미맥 농가부부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편	부인
		(N=118) 빈도(%)	(N=118) 빈도(%)
연령	20대	0(0)	5(4.2)
	30대	11(9.3)	16(13.6)
	40대	41(34.7)	47(39.8)
	50대	34(28.8)	25(21.2)
	60대이상	32(27.1)	25(21.2)
	평균	53.5세	50.3세
학력	무학	8(6.8)	17(14.4)
	초졸	37(31.4)	35(29.7)
	중졸	22(18.6)	25(21.2)
	고졸	38(32.2)	31(26.3)
	전문대졸이상	13(11.0)	10(8.5)
질병유무	질병있음	43(36.4)	48(40.7)
	질병없음	69(58.5)	60(50.8)
	모름	6(5.1)	10(8.5)
직업	농업	110(93.2)	101(85.6)
	비농업	8(6.8)	17(14.4)
년 가계 소득	1000만원이하	18(15.3)	
	1001만원-2000만원	21(17.8)	
	2001만원-4000만원	49(41.5)	
	4001만원-6000만원	21(17.8)	
	6001만원이상	9(7.6)	
	평균	3951.36만원	

IV. 연구결과

1.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구조

여기에서는 미맥 농가부부의 농번기·농한기 생활시간구조를 간략히 살펴본 후, 각 생활시간의 부부간 차이, 농사시기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표 5>와 같다. 우선 농번기에 남편과 부인을 보면 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무생활시간으로 각각 하루의 42.4%, 46.4%를 배분하였고, 다음은 필수생활시간으로 남편과 부인은 각각 하루의 40.3%, 38.3%를 배분하였다. 이 두 영역의 생활시간을 합치면 약 80% 이상으로 하루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생활시간에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하루의 16.1%, 13.7%만을 배분하였다. 의무생활시간 중 농업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여 남편과 부인은 각각 하루의 36.7%, 26.7%를 배분한 반면 가사노동에는 각각 하루의 2.1%, 16.0%를 배분하였다.

농한기에 남편과 부인의 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생활시간으로 각각 하루의 44.4%, 43.6%를 배분하였고, 다음은 의무생활시간으로 농번기에 비해 줄어든 하루의 27.8%, 34.7%를 배분하였다. 여가생활시간은 농번기에 비해 증가하여 남편과 부인은 각각 하루의 27.0%, 20.6%를 배분하였다. 의무생활시간 중 농업노동은 농번기에 비해 줄어 남편과 부인은 각각 하루의 15.6%, 7.8%를 배분하였고, 가사노동에는 농번기에 비해 증가하여 각각 하루의 8.0%, 23.7%를 배분하였다.

농번기·농한기의 필수생활시간에는 농번

기에 부인이 가장 짧은 시간을 배분하였고, 농한기에 남편이 가장 긴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생활시간은 농한기에 남편이 가장 짧은 시간을 배분하고, 농번기에 부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은 농번기에 부인이 가장 짧은 시간을 배분하였고, 농한기에 남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번기에 부인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이중역할로 노동시간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여 필수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을 감소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단위-시간:분,%)

구분	농번기		농한기	
	남편 (N=118)	부인 (N=118)	남편 (N=118)	부인 (N=118)
필수생활시간	9:40 (40.3)	9:12 (38.3)	10:39 (44.4)	10:28 (43.6)
의무생활시간	10:11 (42.4)	11:08 (46.4)	6:41 (27.8)	8:20 (34.7)
농업 외 노동	0:52 (3.6)	0:54 (3.7)	1:02 (4.3)	0:45 (3.1)
농업노동	8:48 (36.7)	6:24 (26.7)	3:44 (15.6)	1:52 (7.8)
가사노동	0:31 (2.1)	3:50 (16.0)	1:55 (8.0)	5:41 (23.7)
학습	0:00 (0)	0:00 (0)	0:00 (0)	0:02 (0.1)
여가생활시간	3:52 (16.1)	3:17 (13.7)	6:29 (27.0)	4:56 (20.6)
기타	0:17 (1.2)	0:23 (1.6)	0:11 (0.8)	0:16 (1.1)
합계	24:00	24:00	24:00	24:00

2) 미맥 농가부부의 필수생활시간구조

미맥 농가부부의 필수생활시간의 부부간 시간차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인의 필수생활시간은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남편의 필수생활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은 농번기에 남편이 9시간 40분, 부인이 9시간 12분으로 남편의 시간이 부인에 비해 28분 길어 그 차이는 부부간에 유의하였고, 농한기에 남편은 10시간 39분, 부인은 10시간 28분을 배분하여 남편의 시간이 부인에 비해 11분 길었으나 그 차이는 부부간에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내역별로 농번기에 부부를 비교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내역에서 모두 남편의 시간이 부인에 비해 길었다.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내역의 사용시간을 보면 식사 및 간식에 남편은 1시간 54분, 부인은 1시간 41분을 사용하였고, 개인관리에 남편은 30분, 부인은 23분을 사용하였다. 농한기에는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세부내역이 없었다.

다음으로 미맥 농가부부의 필수생활시간의 농사시기별 시간차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 농가부부 모두 농번기보다 농한기에 필수생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농번기에 9시간 40분, 농한기에 10시간 39분을 사용하여 농번기에 비해 농한기의 시간이 59분 길며 그 차이는 농사시기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 농번기는 9시간 12분, 농한기는 10시간 28분을 사용하여 농번기에 비해 농한기의 시간이 1시간 16분 길며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수면, 개인관리에서, 부인의 경우 수면, 개인관리, 건강관리에서 농사시기별 시간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내역에서 모두 농번기보다 농한기의 시간이 길었다.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내역의 사용시간을 보면 남편의 경우 수면은 농번기에 7

〈표 6〉 미맥 농가부부의 필수생활시간

(단위-시간:분)

행동분류		농번기			농한기			농사시기별 t값	
대분류	중분류	남편 (N=118)	부인 (N=118)	t값	남편 (N=118)	부인 (N=118)	t값	남편	부인
개인유지	수면	7:06	7:02	.667	7:58	7:45	1.792	-5.658 ***	-5.724 ***
	식사 및 간식	1:54	1:41	2.270 *	1:50	1:47	.676	.576	-1.130
	개인관리	0:30	0:23	3.448 **	0:45	0:41	1.066	-4.141 ***	-4.736 ***
	건강관리	0:05	0:03	.975	0:04	0:11	-1.743	.471	-2.041 *
	기타개인유지	0:01	0	1.006	0	0	-1.268	1.362	.000
	이동	0:04	0:03	.397	0:02	0:04	-1.652	1.297	-.490
합계		9:40	9:12	3.125 **	10:39	10:28	1.114	-5.542 ***	-7.003 ***

* P<.05, ** P<.01, *** P<.001

시간 6분, 농한기에 7시간 58분, 개인관리는 농번기에 30분, 농한기에 45분을 사용하였다. 부인의 경우 수면은 농번기에 7시간 2분, 농한기에 7시간 45분, 개인관리는 농번기에 23분, 농한기에 41분, 건강관리에는 농번기에 3분, 농한기에 11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농한기에 미맥 농가부부의 필수생활시간이 농번기에 비해 증가한 것은 벼농사의 특성상 수확 이후 농한기에는 농업에 투입하는 시간이 감소하므로 미맥 농가의 남편과 부인은 수면시간과 개인관리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필수생활시간은 부부간의 차이보다 농사시기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고, 부인의 필수생활시간은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남편의 필수생활시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진흥청(1988, 1993, 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미맥 농가부부의 의무생활시간구조

의무생활시간의 부부간 시간차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는 <표 7>과 같다. 의무생활시간은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부인의 시간이

남편보다 길었고,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수입노동은 남편이, 가사노동은 부인의 시간이 길었다.

의무생활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남편이 10시간 11분, 부인이 11시간 8분을 사용하여 부인의 시간이 남편에 비해 57분이 길어 그 차이는 부부간에 유의하였고, 농한기의 경우 남편이 6시간 41분, 부인이 8시간 20분을 사용하여 부인의 시간이 남편에 비해 1시간 39분 길어 그 차이가 부부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시간을 크게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나누어 보면 농번기·농한기에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노동은 남편이, 가사노동은 부인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용시간을 보면 수입노동은 농번기에 남편이 9시간 40분, 부인이 7시간 18분, 농한기에는 남편이 4시간 46분, 부인이 2시간 39분을 사용하였다. 가사노동은 농번기에 남편이 31분, 부인이 3시간 50분, 농한기에는 남편이 1시간 55분, 부인이 5시간 41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가사노동시간의 부부간의 차이는

수입노동의 부부간의 차이보다 커서 의무생활 시간은 부인의 시간이 남편보다 길게 나타난 것이다.

대분류별 사용시간을 보면 농번기와 농한기에 농업노동,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시간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기에 농업노동에서는 남편이,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서는 부인의 시간이 더 길었다.

대분류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사용시간을 보면 농번기의 경우 농업노동은 남편이 8시간 48분, 부인이 6시간 24분, 가정관리에는 남편이 17분, 부인이 3시간 10분, 가족보살피기에는 남편이 14분, 부인이 40분을 사용하였다. 농한기의 경우 농업노동에 남편이 3시간 44분, 부인이 1시간 52분, 가정관리에는 남편이 1시간 35분, 부인이 5시간, 가족보살피기에는 남편이 20분, 부인이 41분을 사용하였다. 전체 농가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조희금 외(2006) 연구에서는 농업노동시간이 농번기에 남자가 7시간 18분, 여자가 5시간 13분, 농한기에 남자가 3시간 43분, 여자 1시간 59분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농업노동시간은 전체 농가 가족원에 비해 농번기에는 미백 농가부부의 시간이 다소 많고, 농한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농가 가족원의 가정관리시간은 농번기에 남자가 16분, 여자가 2시간 20분, 농한기에 남자가 57분, 여자가 3시간 38분으로 나타났고, 가족보살피기시간은 농번기에 남자가 8분, 여자가 32분, 농한기에 남자가 13분, 여자가 30분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농번기, 농한기의 미백 농가부부의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의 시간이 전체 농가 가족원에 비해 다소 많다.

다음으로 세부내역별로 농가부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노동에서는 농번기의 경우 재배·사육 및 생산, 농업교육 및 사회참

여, 기타 농업 관련 일에서, 농한기의 경우 재배·사육 및 생산, 판매 및 경영활동, 농업교육 및 사회참여, 농업이동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내역에서 모두 남편의 시간이 부인보다 길었다. 그러나 부인이 농업노동 각 내역에 투여하는 시간양은 남편과 부인의 농업노동 분담 측면에서 볼 때 낮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세부내역을 보면, 농번기의 경우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내역 모두 부인의 시간이 남편에 비해 길었다. 농한기의 경우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경영,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집 관리와 가정경영에서는 남편이,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에서는 부인의 시간이 남편에 비해 길었다. 농번기와 달리 농한기에 집관리와 가정경영의 시간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각각 일부 지방의 폭설로 인해 집 주변 정리 및 보수작업의 증가와 농작물 수확 이후 얻게 된 소득으로 가계재무관리 관련 시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세부내역에 있어 남편은 집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영역, 청소 및 정리, 기타가사일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부인은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 영역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수행 영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이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와 같이 전통적인 가사노동 영역을 분담하긴 하나 그 분담 정도는 미미하며, 주

로 집관리나 기타 가사일과 같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여 부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사노동 영역의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생활시간의 부부간 시간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인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한기에는 부부간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더욱 크게 나서 가사노동의 부담과 책임은 주로 부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무생활시간의 농사시기별 시간차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를 <표 7>에서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농한기에 의무생활시간이 감소하여 농번기와 농한기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과 부인의 농업노동시간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과 부인 모두 증가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은 남편의 경우 농번기에 10시간 11분, 농한기에 6시간 41분을 사용하여 농번기의 시간이 농한기에 비해 3시간 30분 길어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 농번기에 11시간 8분, 농한기에 8시간 20분을 사용하여 농번기의 시간이 농한기에 비해 2시간 48분 길어 그 차이는 농사시기별 유의하였다.

의무생활시간을 크게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나누어서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농사시기별 시간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사용시간을 보면 수입노동은 남편이 농번기에 9시간 40분, 농한기에 4시간 46분, 부인은 농번기에 7시간 18분, 농한기에 2시간 39분을 사용하였다. 가사노동은 남편이 농번기에 31분, 농한기에 1시간 55분, 부인은 농번기에 3시간 50분, 농한기에 5시간 41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농한기에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수입노동시간이 4시간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여 농번기와 마찬가지로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농한기에 조사시기가 김장철 및 매주 만들기 작업을 하는 기간이므로 음식준비 및 정리관련 시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일 수 있겠으나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등 대부분의 가사노동영역에 소요된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볼 때 농촌지역의 부인들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분류 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농업노동, 가정관리에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인의 경우에도 농업노동, 가정관리에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한기에 남편과 부인 모두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였고, 가정관리시간은 증가하였다.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대분류의 시간사용을 보면, 남편의 경우 농업노동은 농번기에 8시간 48분, 농한기에 3시간 44분, 가정관리는 농번기에 17분, 농한기에 1시간 35분을 사용하였고, 부인의 경우 농업노동은 농번기에 6시간 24분, 농한기에 1시간 52분, 가정관리는 농번기에 3시간 10분, 농한기에 5시간을 배분하였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농업노동에서는 남편의 경우 농번기에 재배·사육 및 생산, 농업이동시간에서, 부인의 경우 재배·사육 및 생산, 농업부업, 기타 농업 관련 일, 농업이동에서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인의 기타 농업 관련 일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에서는 모두 농번기의 시간이 농한기보다 길었다. 농업노동 세부내역에 있어 미맥 농가부부는 농번기에는 재배·사육 및 생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농한기에는 남편의 경우 재배·사육 및 생산에 부인은 수확·선별·포장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농사시기에

〈표 7〉 미역 농가부부의 의무생활시간

(단위-시간:분)

대분류	행동분류	농번기			농한기			농사시기별 t값	
		남편 (N=118)	부인 (N=118)	t값	남편 (N=118)	부인 (N=118)	t값	남편	부인
농업 외 노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0:30	0:40	-6.18	0:40	0:32	.563	-708	.939
	기타 일	0:11	0:04	1.612	0:15	0:06	1.790	-673	-631
	이동	0:11	0:10	.397	0:08	0:07	.075	.982	.980
소계		0:52	0:54	-0.67	1:02	0:45	1.023	-600	.796
농업 노동	재배·사육 및 생산	6:01	4:07	5.506***	1:45	0:28	7.128***	13.456***	12.087***
	수확·선별·포장	1:01	0:54	.622	0:39	0:50	-1.274	1.482	.309
	판매 및 경영활동	0:16	0:06	1.929	0:08	0:03	2.154*	1.785	.832
	농업 부업	0:36	0:41	-.311	0:15	0:10	.614	1.421	2.562*
	농업교육 및 사회참여	0:09	0:03	2.054*	0:21	0:06	2.941**	-1.738	-.895
	기타 농업 관련 일	0:10	0:03	2.903**	0:15	0:08	1.729	-.993	-2.349*
	이동	0:35	0:30	.824	0:21	0:07	4.307***	3.619***	3.642***
소계		8:48	6:24	6.386***	3:44	1:52	6.022***	13.188***	13.428***
학 습	학습	0:00	0:00	-895	0:00	0:00	-.401	-.905	-.492
	이동	0:00	0:00	0	0:00	0:02	-1.497	-1.000	-1.711
	소계	0:00	0:00	-895	0:00	0:02	-.530	-1.194	-.885
수입노동 계(①)		9:40	7:18	6.700***	4:46	2:39	6.429***	12.680***	13.310***
가 정 관 리	음식준비 및 정리	0:04	1:51	-17.370***	0:20	3:03	-14.014***	-2.963**	-5.581***
	의류 관리	0:01	0:28	-9.911***	0	0:30	-7.977***	.851	-.428
	청소 및 정리	0:03	0:35	-9.184***	0:19	0:46	-5.570***	-3.864***	-2.496*
	집 관리	0:05	0:03	.377	0:20	0:04	3.946***	-3.746***	-.402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1	0:06	-2.960**	0:07	0:16	-1.858	-3.502**	-2.033*
	가정경영	0:01	0:02	-.806	0:05	0:01	2.562*	-2.326*	1.106
	기타 가사일	0:01	0:03	-1.406	0:18	0:12	1.200	-2.919**	-2.694**
	이동	0:01	0:02	-1.544	0:06	0:08	-.820	-3.328**	-3.419**
소계		0:17	3:10	-16.779***	1:35	5:00	-12.147***	-7.328***	-6.738***
가 족 보 살 피 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0:05	0:24	-2.725**	0:09	0:23	-2.262*	-1.215	.230
	초·중·고생 보살피기	0:03	0:11	-3.345**	0:03	0:12	-3.412**	-.305	-.250
	배우자 보살피기	0:01	0:01	-.068	0:01	0:02	-.669	-.454	-1.351
	부모·조부모 보살피기	0:01	0	1.220	0:01	0	.866	.566	-.555
	그외 가족 보살피기	0	0:01	-1.314	0	0	-.995	1.179	.538
	이동	0:04	0:03	1.219	0:06	0:04	1.520	-.846	-.538
소계		0:14	0:40	-3.834***	0:20	0:41	-2.853**	-1.331	-.113
가사노동 계(②)		0:31	3:50	-15.203***	1:55	5:41	-12.489***	-7.222***	-6.229***
합계(①+②)		10:11	11:08	-3.609**	6:41	8:20	4.998**	10.152***	8.581**

* P<.05, ** P<.01, *** P<.001

따른 농업노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의 세부내역을 보면 남편의 경우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가정관리 이동에서, 부인은 음식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기타 가사일, 가정관리 이동에서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과 부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내역에서 모두 농한기의 시간이 농번기보다 길었다.

미맥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주부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농촌진흥청(1998) 연구에서 수입노동시간이 농번기에 남편이 11시간 35분, 부인이 9시간, 농한기에 남편이 5시간 35분, 부인이 3시간 34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농번기와 농한기의 수입노동 시간은 본 연구의 남편과 부인의 시간이 다소 적었다. 가사노동은 농촌진흥청(1998)의 연구에서 남편이 15분, 부인이 3시간 58분, 농한기에는 남편이 43분, 부인이 5시간 11분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농번기와 농한기에 남편의 시간은 미맥 농가 남편의 시간이 길었으나 부인의 시간은 농한기에만 미맥 농가 부인의 시간이 다소 길었다.

4) 미맥 농가부부의 여가생활시간구조

미맥 농가부부의 여가생활시간의 부부간 차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는 <표 8>와 같다. 여가생활시간은 농번기와 농한기에 모두 남편의 시간이 부인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농한기에 부부간의 차이는 농번기에 부부간의 차이보다 컸다.

여가생활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남편은 3시간 52분, 부인은 3시간 17분을 배분하여 남편의 시간이 부인이 비해 35분 길어 그 차이는 부부간에 유의하였고, 농한기의 경우 남편은

6시간 29분, 부인은 4시간 56분을 사용하여 남편의 시간이 부인에 비해 1시간 33분 길어 그 차이는 부부간에 유의하였다. 이는 전체 농가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조희금 외(2006)의 연구에서 여가생활시간이 농번기에 남자는 3시간 42분, 여자는 3시간 31분, 농한기에 남자는 5시간 21분, 여자는 4시간 26분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농번기에는 농가 가족원과 미맥 농가부부의 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농한기에는 미맥 농가부부의 시간이 다소 많다.

여가생활시간을 크게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 둘로 나누어서 보면, 참여 및 봉사활동은 농번기와 농한기에 있어 부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교제 및 여가활동은 농번기와 농한기에 모두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농번기와 농한기에 모두 남편의 시간이 부인보다 길었다. 사용시간을 보면 교제 및 여가활동은 농번기의 경우 남편이 3시간 44분, 부인이 3시간 4분, 농한기의 경우에도 남편이 6시간 3분, 부인이 4시간 34분을 사용하였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남편과 부인은 미디어 이용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활동 등을 포함한 이 3가지 내역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세부내역에 있어 농번기의 경우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내역이 없었고, 농한기의 경우 이웃·친지 돕기, 참여활동, 교제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여가생활시간의 내역에서 이웃·친지 돕기, 종교활동을 제외한 참여활동, 교제활동, 미디어 이용,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영역에서 남편의 시간이 부인보다 길었다.

이처럼 농번기, 농한기 남편과 부인에 있어

여가생활시간의 부부간의 차이는 농한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농번기에 부인은 여가생활시간의 양이 가장 적고, 앞서 살펴본 의무생활시간의 양은 가장 많게 나타난 결과에 미루어 볼 때 농가 부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생활시간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가생활시간의 농사시기별 시간차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를 <표 8>에서 보면 미맥 농가부부 모두 농한기에는 여가생활시간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한 정도는 부인보다 남편이 컸다.

남편의 경우 여가생활시간은 농번기에 3시간 52분, 농한기에 6시간 29분을 사용하여 농한기의 시간이 농번기에 비해 2시간 37분 길

며 그 차이는 농사시기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도 농번기는 3시간 17분, 농한기는 4시간 56분을 사용하여 농한기의 시간이 농번기에 비해 1시간 39분 길며 그 차이는 농사시기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시간을 크게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나누어서 보면, 남편은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부인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만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 농한기의 시간이 농번기보다 길었다.

사용시간을 보면 참여 및 봉사활동은 남편의 경우 농번기에 8분, 농한기에 26분, 교제 및 여가활동은 농번기에 3시간 44분, 농한기

<표 8> 미맥 농가부부의 여가생활시간

(단위-시간:분)

대분류	행동분류	농번기			농한기			농사시기별 t값	
		남편 (N=118)	부인 (N=118)	t값	남편 (N=118)	부인 (N=118)	t값	남편	부인
참여 및 봉사 활동	이웃·친지 돕기	0:02	0:03	-.435	0:01	0:13	-2.601 *	.752	-2.092 *
	참여활동	0:05	0:06	-.048	0:14	0:04	2.376 *	-2.456 *	.541
	자원봉사	0:00	0:03	-1.000	0:05	0:02	.731	-1.313	.350
	이동	0:01	0:01	.260	0:06	0:03	1.432	-2.678 **	-1.898
소계(①)		0:08	0:13	-.782	0:26	0:22	.434	-2.679 **	-1.266
교제 및 여가 활동	교제활동	0:46	0:35	1.561	1:30	1:04	2.823 **	-4.225 ***	-3.589 ***
	일반인의 학습	0:01	0	1.000	0:05	0:06	-.222	-1.059	-2.111 *
	미디어 이용	1:25	1:13	1.972	2:49	2:03	4.697 ***	-8.377 ***	-6.643 ***
	종교활동	0:03	0:09	-1.170	0:01	0:08	-2.055 *	1.915	.264
여가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0	0	-1.417	0:02	0:02	-.279	-1.731	-.709
	스포츠 및 레저 활동	0:14	0:08	1.964	0:17	0:11	1.559	-1.000	-1.813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1:03	0:52	1.744	0:54	0:38	2.420 *	1.077	2.136 *
	기타 여가관련 행동	0:01	0	.890	0:04	0:04	.286	-1.037	-1.121
소계(②)		3:44	3:04	2.951 **	6:03	4:34	5.124 ***	-7.213 ***	-5.957 ***
합계(①+②)		3:52	3:17	2.465 *	6:29	4:56	4.998 ***	-7.912 ***	-6.126 ***

* P<.05, ** P<.01, *** P<.001

에 6시간 3분을 사용하였고, 부인의 경우 교체 및 여가활동에 있어 농번기에 3시간 4분, 농한기에 4시간 34분을 사용하였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남편은 참여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 교체활동, 미디어 이용, 교체 및 여가활동 이동, 부인은 이웃·친지 돕기, 교체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체 및 여가활동 이동에서 농사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인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에서는 모두 농한기의 시간이 농번기보다 길었다.

여가생활시간에 있어 농번기보다 농한기에 시간이 증가한 것은 미디어 이용의 시간과 교체활동의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가생활시간 세부내역에서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있어 미디어 이용시간이 가장 많아 농한기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미디어 이용이나 교체활동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에 더 사용할 뿐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나 스포츠 및 레저 활동 등과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의 참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맥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주부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농촌진흥청(1998) 연구

에서 여가생활시간이 농번기에 남편은 2시간 21분, 부인은 1시간 30분, 농한기에 남편은 6시간 59분, 부인은 4시간 48분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농번기에는 본 연구의 남편과 부인의 여가생활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났으나 농한기에는 본 연구의 남편의 여가생활시간은 약간 짧게, 부인의 시간은 조금 길게 나타났다.

5) 미맥 농가부부의 기타 생활시간구조

<표 9>는 기타생활시간의 부부간 시간차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이다. 기타시간은 농번기, 농한기에 모두 부인이 남편에 비해 길었으나 그 차이는 농번기, 농한기에 부부간에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내역별로 부부를 비교하면 농번기, 농한기 모두 그 외 기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생활시간의 농사시기별 시간차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 남편과 부인의 기타시간은 농번기의 시간이 농한기보다 길었으나 그 차이는 농사시기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농번기와 농한기를 비교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그 외 기타, 기타이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미맥 농가부부의 기타생활시간

(단위-시간:분)

행동분류		농번기			농한기			시기별 t값	
대분류	중분류	남편 (N=118)	부인 (N=118)	t값	남편 (N=118)	부인 (N=118)	t값	남편	부인
기타	그 외 기타	0:15	0:21	-2.070 *	0:03	0:06	-2.168 *	6.198 ***	4.650 ***
	기타 이동	0:01	0:02	-.785	0:08	0:10	-.636	-2.557 *	-2.254 *
	이동 대기	0:01	0	1.377	0	0	.111	.448	-1.346
합계		0:17	0:23	-1.759	0:11	0:16	-1.474	1.698	1.731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미맥 농가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시간사용실태가 부부간·농사시기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양적 분석을 통해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필수생활시간의 부부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부인의 필수생활시간이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남편의 필수생활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사시기별 차이 분석결과 미맥 농가부부 모두 농번기보다 농한기에 필수생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무생활시간의 부부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부인의 시간이 남편보다 길게 나타나 부인의 노동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수입노동은 남편이, 가사노동은 부인의 시간이 길었지만 가사노동시간의 부부간의 차이가 수입노동시간의 부부간의 차이보다 큰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분류별 내역에 있어 농번기와 농한기에 농업노동,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시간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업노동에서는 남편이,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서는 부인의 시간이 더 길었다. 특히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내역에서 남편은 집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기타가사일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부인은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 영역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수행 영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은 전통적인 가사노동 영역을 분담하긴 하나 그 분담 정도는 미미하고, 주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가사노동을 주로 수

행하였다.

농사시기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농한기에 의무생활시간은 농업노동시간의 감소로 농번기보다 짧았으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과 부인 모두 증가하였다. 농한기에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농업노동시간이 4시간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농번기와 마찬가지로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농한기에 조사시기가 김장철 및 매주 만들기 작업을 하는 기간이므로 음식준비 및 정리관련 시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일 수 있겠으나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등 대부분의 가사노동 영역에 소요된 시간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볼 때 농촌지역의 부인들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농업노동 내역에서는 농번기의 경우 재배·사육 및 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농한기의 경우 수확·선별·포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농업노동 작업의 농사시기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여가생활시간의 부부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농번기와 농한기에 모두 남편의 시간이 부인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농한기에 부부간의 차이가 농번기에 부부간의 차이보다 컸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남편과 부인은 미디어 이용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활동 등 3가지 내역에 여가생활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농사시기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농한기에는 여가생활시간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한 정도는 부인보다 남편이 컸다. 이는 미디어 이용의 시간과 교제활동의 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농번기에 비해 감소된 의무생활시간이 미맥 농가남편은 여가생활시간의 증가로 이어진 것에 반해 미

맥 농가부인은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부부간 생활시간의 배분은 다른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생활시간은 남편보다 부인의 시간이 길었는데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것이 의무생활시간이므로 농촌 부인들은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역할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사노동 내역에 있어 부부간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농촌지역이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과 주변의 인식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가 남편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원의 협조 및 지지와 같은 가정적 차원의 대처 노력 뿐 아니라 시장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는 농촌에서 출산을 전후한 부인들에게 제공되는 국가 복지서비스인데 이와 같은 정책을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농촌 부인들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의 확대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농업노동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농가부부의 신체적·정신적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의 농가부부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노동의 효율화 교육, 그리고 농기계 개발, 시간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노동에서 농업교육 및 사회참여 시간이 매우 짧게 나타났는데 변화하고 있는 영농형태와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농업기술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맥 농가의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의무생활시간은 매우 길게 나타났고, 여가생활시간은 짧게 나타나 농가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생활시간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여가생활시간 내역에서 농사시기에 관계없이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있어 미디어 이용시간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제활동 순이었다. 즉 농한기에는 농번기보다 늘어난 여가시간을 미디어 이용에 주로 시간을 보내며, 교제활동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에 더 시간을 사용할 뿐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나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러한 농가부부의 여가활동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는 여성농업인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가부부들 뿐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같은 미맥 농가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도 가족구조(어린자녀, 청소년 유무 등), 사회인구학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과수, 축산, 시설원예 뿐 아니라 모든 작목의 농가부부,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인, 국제 결혼이민자 등의 생활시간의 양적인 분석 뿐 아니라 시간대별 분석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들의 생활시간배분과 그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파악함으로써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양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농촌에 거주하는 자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접 수 일 : 2007년 5월 03일
- 심 사 일 : 2007년 5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5월 22일

【참 고 문 헌】

- 1) 김인숙, 임평자, 김희순(1996). 농가주부와 경영주의 생활시간 사용.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1), 81-97.
- 2) 김인숙, 허경옥(1998). 농촌지역 부부의 시간사용 실태 비교 및 관련요인 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9(1), 67-78.
- 3) 김외숙, 조희금, 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 4) 김정호, 이병훈(2006). 농업전망 2006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김효정(2004).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99-116.
- 6) 김희순(2000). 미백농가 부부의 노동시간과 노동분담. 서울대학교 농가정학 석사학위논문.
- 7) 농촌진흥청(1988, 1994, 1999).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 8) 두경자(1995). 기혼여성(가사전담 전일제근무 취업주부와 완전자력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한·미·일 비교. 사회과학연구 7권, 297-320.
- 9) 문숙재(1999).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10) 문숙재, 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 11) 박명숙, 백경임(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6), 173-189.
- 12)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혼 및 기혼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13) 이연숙, 이기영, 김외숙, 조희금, 주인숙, 이선형, Zick Cathleen, D. Lee Yoon G.(2002a). 한미 양국 가족의 부부와 자녀의 생활시간 구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6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7-93.
- 14) 이연숙, 이기영, 김외숙, 조희금, 주인숙(2002b).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 15) 이연숙, 이기영, 김외숙, 조희금, 이승미, 홍두승, 조홍식, 김유경, 김소영, 한영선(2006). 자원배분을 통해 본 농가부부의 지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4.
- 16) 장명옥(1990). 가정관리학. 교문사.
- 17) 조희금(1990). 농촌주부의 생활시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63-180.
- 18) 조희금, 이기영, 김외숙, 이연숙, 이승미, 홍두승, 조홍식, 김유경, 김주희(2006).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 분석. 가정관리학회지 24(5), 205-222.
- 19) 최은숙, 이애순(1981).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생활시간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3(1).
- 20) 한경미(1997). 전남지역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의식 및 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2), 111-125.
- 21) 한지수(2003). 부부의 시간사용유형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홍향숙, 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49-59.
- 23) 통계청(1999, 2004).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 24) 통계청(2005). 농림어업 총조사 보고서.

- 25) 한국방송공사(2005). 국민생활시간조사 보고서.
- 26) EUROSTAT(2005). Comparable Time Use Statistics-National Tables from 10 European countries.
- 27) Hill, S.(1985). Patterns of Time Use. In F. Thomas Juster and Frank 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 being.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28) Nickell, Paulena & Dorsey Jean Muir (1967). Management in Family Liv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29) Patricia Apps(2002). Gender Time Use And Models of the Household. World Bank.
- 30)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 6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 31) Robinson, J.P.(1977). How American Use time: A social-Psychologo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ew York : Praeger Pub.
- 32) Szalai, A.(1972). The Use of Time. Paris : Mouton & Co.
- 33) 일본 NHK(1990). '국민생활시간조사'.